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낙관성 및 수용적 양육 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유아교육기관 재원 중인 만3, 4, 5세 유아 361명과 그들의 어머니 361명이었다. 어머니의 낙관성 및 수용적 양육태도는 자기 보고식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고, 유아의 자기조절(인지조절, 정서조절, 행동조절)은 부모 평정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자기조절이 연령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인지조절과 행동조절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정서조절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 낙관성의 하위요인이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조절의 하위요인별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낙관성 하위요인 중 지속성만이 자기조절 하위요인 모두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어머니 수용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이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조절의 하위요인별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수용적 양육태도 하위요인인 애정성과 권리가 자기조절의 하위요인 모두에 영향을 주었다. 독특성은 인지조절과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와 자녀에 대한 수용적인 자세가 유아의 자기조절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해준다.

■ 주제어: 낙관성

수용적 양육태도

자기조절

인지조절

정서조절

행동조절

1)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수로, 제1저자
2)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hjlee@ynu.ac.kr)

어머니의 낙관성 및 수용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Mother's Acceptance Parenting Attitude and Optimism on Children's Self-Regulation

김 미 향¹⁾ 이 현 진²⁾
Mi Hyang Kim Hyeon Jin Lee

1. 서론

최근 사회 부적응적 행동, 공격행동 및 과잉행동, 스마트기기 과몰입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기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기조절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 도덕이나 관습에 어긋나지 않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자기조절이란 상황적 요구에 따라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위해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이다. 자기조절은 단일적인 차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연구자들은 자기조절에 포함되는 다양한 하위 구성요소들을 제안하였다. Calkins와 Fox(2002)는 자기조절을 생리적, 주의력,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구조로 보았다. 장혜인과 박형인(2015)은 아동의 자기조절에 대한 국내연구 62개의 결과를 메타 분석하여 자기조절의 주요 구성요인으로 인지조절, 정서조절, 행동조절 세 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자기조절을 살펴볼 것이다.

인지조절은 실행기능, 실행주의, 주의조절 등 주로 정보를 처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인지조절은 상위인지능력으로 유아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및 계획을 세우며 계획을 수행하는 동안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점검하는 능력을 말한다. 상위인지는 자신의 인지에 대해 자각하고 사고하는 자신의 능력 및 과제해결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다. Fang과 Cox(1999)는 상위인지의 구성요인을 자기평가(self-appraisal)와 자기관리(self-management)로 구분하였다. 자기평가는 본인의 인지적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자기관리는 본인의 인지적 수행에 대한 능동적인 점검과 그 후에 이루어지는 조절과 통합의 과정을 말한다. 즉, 인지조절은 자신의 행동이 목적에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조절하는 과정이다. 영아기부터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초보적인 인지가 출현하고 이러한 인지능력은 유아기에 접어들면서 계획을 세우고 수행할 수 있는 인지조절 능력으로 발달하게 된다(Bronson, 2000).

정서조절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감정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기대하는 정서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절하는 능력이다(Salovey & Mayer, 1990). Shields와 Cicchetti(1997)는 정서조절을 정서적 각성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불안정/부정적 정서(Lability/Negativity)와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불안정/부정적 정서는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이나 공격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 변화에 따라 정서의 강도를 조절하지 못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하는 정서를 의미한다. 정서조절은 정서를 인식하고 상황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여 감정 이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행동조절은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융통성 있게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능력으로 만족지연 시키기,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계획적인 방식으로 업무 수행하기를 포함한다(Olson & Kashiwagi, 2001). Olson와 Kashiwagi(2001)는 행동조절이 자기억제(Self-Inhibition)와 자기주장(Self-Assertion)으로 구성되어있음을 제안하였다. 자기억제는 장기적 보상을 위해서 순간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만족지연 능력, 규칙 준수능력(예, 교실에서 지켜야할 규칙), 정서조절(공포, 슬픔, 분노)등 주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인내심과 같은 절제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자기주장은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능력이다.

자기조절의 발달은 신경과학적 측면에서 볼 때 전두엽의 발달과 관련된다(Shore, 1997). 전두엽은 계획하기, 문제해결, 주의전환과 같은 고등정신작용을 관장하며 정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영역이다. 그리하여 전두엽이 손상된 경우 계획하기, 주의집중하기, 문제해결과 같은 능력에 어려움을 보이게 된다. 자기조절의 발달은 신경계의 성숙과 같은 내적 요인이 기반이 되지만 환경적 요인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환경적 요인 중 주요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유아의 자기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심리적 특성 중 낙관성은 긍정적인

생각 또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말한다. 긍정심리학의 영역에서 20년간 낙관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Seligman(1991)은 낙관성의 하위요인으로 지속성(Permanence), 확산성(Pervasiveness), 귀인성(Personalization)으로 구분하였다. 지속성은 좋은 일의 원인이 자신의 특성이나 능력이라 믿고 긍정적인 상황의 일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말한다. 확산성은 나쁜 일들은 일시적이고 좋은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산적인 생각과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을 말한다. 그리고 귀인성은 자신에 대해 감정과 느낌을 통제하는 것으로 원인을 내부적 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귀인하는 것을 말한다. 신경은(2004)은 만5세 유아 어머니의 낙관성이 자녀의 정서조절과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정서조절은 유아의 정서지능 중 자기정서의 조절 및 억제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낙관성은 유아의 자기정서의 조절 및 억제와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가 낙관적일 때 유아는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정서를 개방적으로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자녀의 자기조절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와도 관련된다.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취하게 되는 태도나 행동 양식을 말한다. 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결정해주며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수용성(acceptance)은 자녀의 자기조절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Porter(1954)는 부모의 수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 첫째,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권리에 대한 존중을 말한다. 둘째, 자녀의 독특성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 셋째,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 욕구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아낌없는 무조건적인 애정을 말한다. 그리하여 수용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지지적이며,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적정선의 한계를 두며, 수용할 수 있는 행동과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을 분명히 구별해 준다. 반면에 비수용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어머니는 자녀의 자율적인 행동을 길러주지 못하고, 어머니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자녀를 존중하지 않으며 귀찮은 존재로 생각한다.

또한 칭찬에 인색하고 자녀에게 비합리적인 통제방법을 사용한다.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와 자기조절 간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 증거들이 제시되었다(유종남, 오인수, 2015; 채경진, 유연옥, 2015; Eisenberg, Smith, & Spinrad, 2013). Eisenberg, Smith와 Spinrad(2013)는 양육자의 합리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신체적 개입이나 복종 강요 등 권위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자기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유종남과 오인수(2015)는 만4세와 만5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태도를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가 Porter(1954)의 수용적 양육태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유아의 자기조절을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중 자기평가와 자기결정이 인지조절에, 행동억제는 행동조절에, 정서성은 정서조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결과, 수용적 양육태도에 해당되는 어머니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인지조절인 자기결정을 예측해 주었으나 정서조절과 행동조절은 예측해 주지 못했다. 즉, 수용적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는 자녀의 독립성 욕구를 인식하여 자녀가 독립적인 자세를 갖도록 지지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채경진과 유연옥(2015)에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채경진과 유연옥(2015)은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온정·격려태도, 한계설정태도, 과보호·허용태도, 거부·방임태도로 구분하였다. 그 중 온정·격려태도는 자녀의 행동을 지지하고 수용하며, 칭찬이나 격려와 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포함하는데 이것이 수용적 양육태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자기조절을 행동조절과 정서조절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수용적 양육태도에 해당되는 어머니의 온정·격려태도는 행동조절과 정서조절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애정이 있는 수용적 양육태도를 보일 때 유아는 상황에 적절한 정서 표현이나 행동조절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희진(2017)은 만3세, 만4세,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태도, 거부적태도, 자율적태도, 통제적태도로 구분하였다 그 중 애정적태도와 자율적태도가 수용적 양육태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수용적 양육태도에 해당되는 어머니의 애정적태도가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자기조절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자기조절의 하위요인에 따라 수용적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보고하고 있다(박희진, 2017; 유종남, 오인수, 2015; 채경진, 유연옥, 2015). 유종남과 오인수(2015)는 수용적 양육태도가 인지조절을 예측해 주었지만 정서조절과 행동조절은 예측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채경진과 유연옥(2015) 역시 수용적 양육태도가 정서조절과 행동조절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인지조절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지 않았다. 박희진(2017)은 수용적 양육태도와 정서조절 간의 관계만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자기조절의 하위요인에 따라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은 이 영향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을 대두시킨다. 더 나아가, 선행연구들은 수용적 양육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구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용적 양육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권리, 독특성, 자율성, 애정성)을 구별하고 이 하위요인들이 자기조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인 낙관성과 자기조절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로는 신경은(2004)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낙관성과 정서조절 간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기에 이 두 변인이 어떤 영향력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에 인지조절, 행동조절, 정서조절을 포함하고 낙관성이 이 하위요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기조절(인지조절, 정서조절, 행동조절)은 연령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낙관성이 유아 자기조절(인지조절, 정서조절,

행동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유아 자기조절(인지조절, 정서조절, 행동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시에 소재한 유아 교육기관 5곳에 재원 중인 만3세, 만4세, 만5세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어머니는 본인의 낙관성과 수용적 양육태도에 대한 질문지와 유아의 자기조절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참여한 연구대상의 연령의 분포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 (N = 361)

	구분	빈도(%)
연령	만3세	63
	만4세	108
	만5세	190

2. 연구도구

1) 어머니 낙관성

어머니의 낙관성은 Seligman(1991)이 개발한 성인용 낙관성 척도 ASQ(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로 측정하였다. ASQ는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 중 우리 문화 정서에 맞지 않은 18개 문항을 삭제한 후 3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ASQ는 지속성, 확산성, 귀인성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을 가상으로 제시한 후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을 답하도록 되어 있다. 지속성은 일어난 사건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적이라고 믿는지를 질문한다. 그리하여 지속성의 경우 긍정적 상황을 제시했을 때 그 사건이 지속적이라고 반응하면

긍정적 반응(Permanence Good; PmG)으로 간주하고 그 사건이 일시적이라고 반응하면 부정적 반응(Permanence Bad; PmB)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부정적 상황을 제시했을 때 그 사건이 일시적이라고 반응하면 긍정적 반응(PmG)으로 간주하고 그 사건이 지속적이라고 반응하면 부정적 반응(PmB)으로 간주한다. 확산성은 사건의 원인이 다른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사건에만 국한되어 일어난 것인지를 질문한다. 확산성의 경우 긍정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일도 긍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반응하면 긍정적 반응(Pervasiveness Good; PvG)으로 간주하고 긍정적 사건이 그 사건에만 국한되어 일어날 것이라고 반응하면 부정적 반응(Pervasiveness Bad; PvB)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부정적 사건이 그 사건에만 국한되어 일어날 것이라고 반응하면 긍정적 반응(PvG)으로 간주하고 부정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일도 부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반응하면 부정적 반응(PvB)으로 간주한다. 귀인성은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내부적 요인인지 외부적 요인인지를 질문한다. 귀인성의 경우 긍정적 상황에서 내부적 요인으로 답을 하면 긍정적 반응(Personalization Good; PsG)으로 간주하고 외부적 요인으로 답을 하면 부정적 반응(Personalization Bad; PsB)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부정적 상황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답을 하면 긍정적 반응(PsG)으로 간주하고 내부적 요인으로 답을 하면 부정적 반응(PsB)으로 간주한다. 낙관성 점수로는 긍정적 반응에는 1점을 주고 부정적 반응에는 0점을 준 후 긍정적 점수에서 부정적 점수를 뺀 값을 사용한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어머니의 낙관성 측정도구

	하위요인	문항 수	신뢰도
지속성	나쁜 일(PmB)	5	.76
	좋은 일(PmG)	5	.71
확산성	나쁜 일(PvB)	5	.79
	좋은 일(PvG)	5	.91
귀인성	나쁜 일(PsB)	5	.93
	좋은 일(PsG)	5	.72
낙관성 전체		30	.82

2) 어머니 수용적 양육태도

어머니의 수용성은 Porter(1954)가 개발한 자기 보고식 질문지 Porter Parental Acceptance Scale (PPAP)를 정영숙(1992)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PPAP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a)자녀의 감정과 자녀가 그 감정을 표현할 권리를 존중하는가, (b)자녀의 독특성을 이해하는가, (c)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욕구를 인식하는가, (d)무조건적인 애정을 보여주는지를 평정하도록 한다. 본연구에서는 40문항으로 구성된 PPAP에서 중복되는 문항을 삭제한 후 2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은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각 문항은 1점(낮은 수용성)에서 5점(높은 수용성)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받을 수 있는 점수는 25점부터 125점까지이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어머니 수용적 양육태도 측정도구

하위요인	문항 수	신뢰도
(a) 권리	5	.71
(b) 독특성	5	.70
(c) 자율성	5	.70
(d) 애정성	10	.73
수용성 전체	25	.77

3) 유아 자기조절

유아의 자기조절은 인지조절, 정서조절, 행동조절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1) 인지조절

인지조절은 이정란(2003)이 개발한 척도에서 인지조절을 측정하는 1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인지조절 척도는 자기평가와 자기결정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평가는 유아 자신의 행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결정은 자기평가를 기초로 상황에 필요한 정보와 문제해결 방안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조금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유아의 인지조절 측정도구

하위요인	문항 수	신뢰도
자기평가	5	.91
자기결정	9	.85
인지조절 전체	14	.90

(2) 정서조절

유아의 정서조절은 Shields와 Cicchetti(1997)가 개발한 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ERC)를 최정은(201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아의 정서조절을 부모나 교사가 보고하는 도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평정하였다. ERC는 불안정/부정적 정서와 정서조절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정/부정적 정서는 분노가 유발되거나 또는 공격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 변화에 따라 정서의 강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의미한다. 정서조절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상황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여 감정 이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조금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불안정/부정적 정서는 역 채점하였기에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유아의 정서조절 측정도구

하위요인	문항 수	신뢰도
불안정/부정적정서	14	.84
정서 조절	10	.74
정서조절 전체	24	.84

(3) 행동조절

행동조절은 Olson과 Kashiwagi(2001)가 개발한 유아의 행동조절 교사평정척도(Teacher ratings of behavioral self-regulation)를 최은아(2013)가 수정 번안한 것을 어머니 평정척도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행동조절은 총 20문항으로 자기주장(5문항)과 자기 통제(15문항)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자

기주장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지를 질문한다. 자기통제는 금지나 지시에 순응하는 행동, 욕구충족 지연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조금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유아의 행동조절 측정도구

하위요인	문항 수	신뢰도
자기주장	5	.77
자기억제	15	.87
행동조절 전체	20	.88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만3세, 만4세, 만5세의 어머니 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650부의 설문지 중 총 40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불성실한 답변이 포함된 39부를 제외하고, 최종 361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어머니 낙관성 및 수용적 양육태도와 유아 자기조절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유아 자기조절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낙관성 및 수용적 양육태도가 유아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자기조절(인지조절, 정서조절, 행동조절)은 연령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가?

유아의 자기조절(인지조절, 정서조절, 행동조절)이 연

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유형별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연령에 따른 자기조절 유형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N = 361$)

총점	만3세 ^a		만4세 ^b		만5세 ^c		F	Scheffé test
	(n = 63)	(n = 108)	(n = 190)	(n = 190)	(n = 190)	(n = 190)		
인지조절	M	(SD)	M	(SD)	M	(SD)	21.22***	a<b<c
정서조절	70	46.65 (9.32)	51.25 (8.13)	54.32 (7.91)	54.32 (7.91)	21.22***	2.98	
행동조절	120	87.20 (10.07)	90.03 (10.09)	90.83 (10.32)	90.83 (10.32)	3.68*	3.68*	a<c

* $p < .05$, *** $p < .001$

분석결과, 인지조절($F = 21.22, p < .001$)과 행동조절($F = 3.68, p < .05$)에서 연령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정서조절에서 연령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어느 연령에서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 실시 결과, 인지조절은 만3세와 만4세($p < .001$), 만3세와 만5세($p < .001$), 만4세와 만5세($p < .01$)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행동조절은 만3세와 만5세($p < .05$)간의 차이는 유의하였지만 만3세와 만4세, 만4세와 만5세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2. 어머니의 낙관성이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1) 어머니의 낙관성과 유아의 자기조절 간의 관계

어머니 낙관성의 하위요인(지속성, 확산성, 귀인성)과 유아 자기조절의 하위요인(인지조절, 정서조절, 행동조절)과의 상관관계를 표 8에 정리하였다.

표 8. 어머니의 낙관성과 유아의 자기조절 간의 상관관계 ($N = 361$)

구분	어머니 낙관성			유아 자기조절		
	지속성	확산성	귀인성	인지조절	정서조절	행동조절
지속성	1					
확산성	.58***	1				
귀인성	.02	-.43***	1			

표 8. 어머니의 낙관성과 유아의 자기조절 간의 상관관계(계속) ($N = 361$)

구분	어머니 낙관성			유아 자기조절		
	지속성	확산성	귀인성	인지조절	정서조절	행동조절
인지조절	.17***	.06	.00	1		
정서조절	.21***	.11*	-.02	.45***	1	
행동조절	.21***	.05	-.01	.69***	.59***	1

* $p < .05$, *** $p < .001$

어머니 낙관성의 하위요인인 지속성은 인지조절($r = .17, p < .001$), 정서조절($r = .21, p < .001$), 행동조절($r = .21, p < .001$)과 상관을 보였다. 확산성은 정서조절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 = .11, p < .05$). 그러나 귀인성은 유아의 자기조절 어떤 유형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2) 어머니의 낙관성이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낙관성의 하위요인이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조절의 하위요인별로 분석하였다. 유아의 인지조절의 경우 어머니 낙관성 하위요인 중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것은 지속성뿐이었다. 따라서 지속성을 독립변인으로, 인지조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속성이 포함된 모델이 유의하였다($F = 11.55, p < .001$). 지속성은 인지조절의 변량 중 2.8%를 설명하였다.

표 9. 유아 인지조절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N = 361$)

종속변인	B	S.E.	β	t	R^2 (조정된 R^2)	F
인지조절	.86	.25	.17	3.40***	.03(.03)	11.55***

*** $p < .001$

정서조절의 경우, 어머니 낙관성 하위요인 중 유아의 정서조절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지속성과 확산성을 독립변인으로, 정서조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최대 VIF는 1.00 ~ 1.00 사이로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이 높지 않았다. 회귀분석 결과, 확산성을 제외한 지속성만이 포함된 모델이 유의하였다($F = 16.97, p < .001$). 지속성은 정서조절의 변량 중 4.2%를 설명하였다.

표 10. 유아 정서조절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N = 361$)

종속변인	B	S.E.	β	t	R^2 (조정된 R^2)	F
정서조절	1.22	.29	.21	4.12***	.04(.04)	16.97***

*** $p < .001$

어머니 낙관성 하위요인 중 유아의 행동조절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것은 지속성뿐이었다. 따라서 지속성을 독립변인으로, 행동조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속성이 포함된 모델이 유의하였다($F = 17.62, p < .001$). 지속성은 행동조절의 변량 중 4.4%를 설명하였다.

표 11. 유아 행동조절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N = 361$)

종속변인	B	S.E.	β	t	R^2 (조정된 R^2)	F
행동조절	1.16	.27	.21	4.19***	.05(.04)	17.62***

*** $p < .001$

3.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1)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 간의 관계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인지조절, 정서조절, 행동조절 간의 상관관계를 표 12에 정리하였다.

표 12.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 간의 상관관계 ($N = 361$)

구분	어머니 수용성			유아 자기조절			
	권리	독특성	자율성	애정성	인지조절	정서조절	행동조절
권리	1						
독특성	.26***	1					
자율성	.31***	.16**	1				
애정성	.18***	.11*	.12*	1			
인지조절	.20***	.19***	.12*	.18***	1		
정서조절	.18***	.20***	.09	.21***	.46***	1	
행동조절	.22***	.12*	.14**	.22***	.69***	.59***	1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 하위요인인 권리는 인지조절($r = .20, p < .001$), 정서조절($r = .18, p < .001$), 행동조절($r = .22, p < .001$)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독특성은 인지조절($r = .19, p < .001$), 정서조절($r = .20, p < .001$), 행동조절($r = .12, p < .05$)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자율성은 인지조절($r = .12, p < .05$), 행동조절($r = .14, p < .01$)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정서조절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애정성은 인지조절($r = .18, p < .001$), 정서조절($r = .21, p < .001$), 행동조절($r = .22, p < .001$)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2)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수용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이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조절의 하위요인별로 분석하였다. 어머니 수용적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유아의 인지조절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권리, 독특성, 자율성, 애정성을 독립변인으로, 인지조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최대 VIF는 1.00 ~ 1.00 사이로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이 높지 않았다. 회귀분석 결과, 자율성을 제외한 권리, 독특성, 애정성이 포함된 모델이 유의하였다($F = 6.75, p < .01$). (표 13 참조) 이상의 변인들은 인지조절의 변량 중 7.2%를 설명하였다. 회귀모델에서 유의하게 나온 개별 변인들의 설명력을 보면, 권리($\beta = .14$), 독특성($\beta = .14$), 애정성($\beta = .13$)이 비슷한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유아 인지조절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N = 361)

독립변인	B	S.E.	β	t	R^2 (조정된 R^2)	R^2 변화량	F
1 권리	.40	.10	.20	3.97***	.04(.04)	.04	15.82***
2 권리	.35	.10	.18	3.43***	.06(.06)	.02	7.69**
애정성	.26	.10	.14	2.77**			
3 권리	.28	.10	.14	2.71**	.08(.07)	.02	6.75**
애정성	.25	.10	.13	2.61**			
독특성	.32	.12	.14	2.58**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 수용적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유아의 정서조절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권리, 독특성, 애정성을 독립변인으로, 정서조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최대 VIF는 1.00 ~ 1.01 사이로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이 높지 않았다. 회귀분석 결과, 애정성과 독특성 그리고 권리 모두 포함된 모델이 유의하였다($F = 4.50, p < .05$). (표 14 참조) 이상의 변인들은 정서조절의 변량 중 8.0%를 설명하였다. 회귀모델에서 유의하게 나온 개별 변인들의 설명력을 보면, 애정성($\beta = .17$), 독특성($\beta = .15$), 권리($\beta =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수용적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애정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임을 시사해준다.

표 14. 유아 정서조절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N = 361)

독립변인	B	S.E.	β	t	R^2 (조정된 R^2)	R^2 변화량	F
1 애정성	.45	.11	.20	4.03***	.04(.04)	.04	16.24***
2 애정성	.41	.11	.18	3.67***	.08(.07)	.03	12.64***
독특성	.50	.14	.18	3.55***			
3 애정성	.37	.11	.17	3.30***	.09(.08)	.01	4.50*
독특성	.42	.14	.15	2.94**			
권리	.26	.12	.11	2.12*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 수용적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유아의 행동조절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권리, 독특성, 자율성, 애정성을 독립변인으로, 행동조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최대 VIF는 1.00 ~ 1.05 사이로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이 높지 않았다. 회귀분석 결과, 자율성과 독특성을 제외한 애정성과 권리가 포함된 모델이 유의하였다($F = 12.33, p < .001$). (표 15 참조) 이상의 변인들은 행동조절의 변량 중 7.7%를 설명하였다. 회귀모델에서 유의하게 나온 개별 변인들의 설명력을 보면, 애정성($\beta = .19$), 권리($\beta =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애정성과 권리가 유아의 행동조절에 비슷한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표 15. 유아 행동조절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N = 361)

독립변인	B	S.E.	β	t	R ² (조정된 R ²)	R ² 변량	F
1 애정성	.45	.10	.22	4.36***	.05(.05)	.05	19.09***
2 애정성	.39	.10	.19	3.71***	.08(.08)	.03	12.33***
권리	.39	.11	.18	3.51***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낙관성 및 수용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자기조절의 발달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인지조절의 경우 만3세, 만4세, 만5세 모든 연령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행동조절은 만3세와 만5세 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조절 능력이 만3세보다 만5세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문선정, 2017; 정은주, 2005). 유아들이 어릴 때 어머니들은 행동을 통제하는 지시를 내리고 어린 유아들은 그러한 지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언어로 자기주장을 할 수 있고, 외적 요구나 사회적 규범 기준에 적절한 행동을 하기 위해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설명은 Kopp(1982)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Kopp(1982)은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는 상위인지 능력과 표상적 사고능력이 이 시기에 발달하고, 이러한 능력의 발달이 자기조절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에, 유아의 정서조절은 연령에 따른 발달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정민(2013)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김정민(2013)은 유아의 정서조절을 실험 방법과 설문지 방법 두 가지로 측정했을 때 실험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나, 설문지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정서조절에서의 연령간 차이는 측정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정서조절을 설문지로 측정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정서조절을 다른 측정방법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어머니 낙관성의 어떤 하위요인이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속성이 유아의 인지조절, 정서조절, 행동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낙관적일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진다는 신경은(200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지속성은 좋은 일의 원인이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믿는 성향이다. 지속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어머니는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자신감을 갖고 행동할 것을 격려하기에 이러한 어머니의 성향은 자녀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자율적인 환경에서 자란 유아들은 누군가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더 나아가 행동을 자기 스스로 조절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의 어떤 하위요인이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요인 중 애정성과 권리는 인지조절, 정서조절, 행동조절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유아의 정서조절이 높다는 박희진(201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박희진(2017)은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애정성은 유아가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유아에게 무조건적인 애정을 보여주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무조건적 애정을 주는 부모는 항상 자녀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유아가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함께 공감해준다. 그리하여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어머니 밑에서 자란 유아들은 올바른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리의 본질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표현이다.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주며 유아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해 줄 때 유아는 권리를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처럼 어머니가 유아의 생각과 행동을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양육은 유아의 자기평가나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독특성은 인지조절과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독특성이란 개인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어머니가 유아의 독특성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평소 유아의 관심사와 감정을 파악하고 개성과 독특함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어머니는 유아의 잠재력을 찾아 길러주고 유아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틀을 변형시키지 않으려 노력한다. 또한 유아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또래 유아들과 비교하여 유아의 행동과 성취를 평가하지 않으며 유아만의 성장 패턴, 관심사 및 가치 측면에서 행동을 평가한다. 이러한 어머니는 유아가 특정 과제 수행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유아의 인지조절을 발달시켜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독특성은 유아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도 그러한 감정이 정신 건강 유지를 위해 표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을 포함한다. 유아가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 주며 그에 대해 열린 의사소통을 하는 어머니는 유아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어머니가 낙관적일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았다. 특히 낙관성 하위요인 중 지속성이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또한 어머니가 수용적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았다. 수용적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애정성과 권리는 자기조절 하위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쳤으며, 독특성은 인지조절과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낙관적인 사고와 수용적 양육태도를 갖는 것이 유아의 자기조절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어머니의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와 자녀에 대한 수용적인 자세가 유아의 자기조절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민(2013). 실행기능과 기질이 유아의 상황에 따른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선정(2017).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태도와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희진(2017). 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정서조절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경은(2004). 어머니의 낙관성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종남, 오인수(201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 자아존중감 및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6(2), 79-103. doi:10.15854/jes.2015.06.46.2.79
 이정란(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혜인, 박형인(2015). 아동의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 국내 연구의 메타분석적 개관. **한국발달심리학회지**, 28(1), 1-32.
 정영숙(1992). 가족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은주(2005). 유아의 행동적·정서적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채경진, 유연옥(2015). 유아의 활동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열린부모교육학회지**, 7(1), 19-34.
 최은아(2013). 유아의 발달적 변화에 따른 인지적 실행기능 및 정서적 실행기능과 자기조절 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은(2016).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ronson, M. B. (2000). Recognizing and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i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55(2), 32-37.
 Calkins, S. D., & Fox, N. A. (2002). Self-regulatory processes in early personality development: A multilevel approach to the study of childhood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4(3), 477-498. doi:10.1017.S095457940200305X

- Eisenberg, N., Smith, C. L., & Spinrad, T. L. (2013). Effortful control: Relations with emotion regulation, adjustment, and socialization in childhood. In K. D. Vohs & R. F. Baumeister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2nd ed. pp. 263-283). New York: Guilford Press.
- Fang, Z., & Cox, B. E. (1999). Emergent metacognition: A study of preschoolers' literate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3*(2), 175-187. doi:10.1080/02568549909594738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doi:10.1037/0012-1649.18.2.199
- Olson, S. L., & Kashiwagi, K. (2001). Teacher ratings of behavioral self-regulation in preschool children: A Japanese/ U.S. comparis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609-617. doi:10.1016/S0193-3973(00)00056-3
- Porter, B. M. (1954). Measurement of parental acceptance of children. *Journal of Home Economics, 46*, 176-182.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doi:10.2190/DUGG-P24E-52WK-6CDG
- Seligman, M. E. P. (1991). *Learned optimism: How to change your mind and your life [sound recording]*. New York: Simon & Schuster Audio.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906-916. doi:10.1037/0012-1649.33.6.906
- Shore, R. (1997). *Rethinking the brain: New insights into early development*. New York: Families and Work Institute.

The Effect of Mother's Acceptance Parenting Attitude and Optimism on Children's Self-Regulation

Mi Hyang Kim

Graduate Student, Dept. of Childhood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Hyeon Jin Lee

Professor, Dept. of Childhood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other's acceptance parenting attitude and optimism on children's self-regulation including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regulation.

Methods: The subjects were 361 3, 4, 5 - year - 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who attended to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One-way ANOVA was conducted to find out age differences in self-regulation. Th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find out whether the mother's optimism could predict their children's self-regulation. Th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find out whether the mother's acceptance parenting attitude could predict their children's self-regulation.

Results: As for the self-regulation, there were significant age differences in the cognitive regulation and the behavioral regulation, but not in the emotional regulation. It implies that the abilities of cognitive and behavioral regulation increase as the age level goes up. As for the relations between mother's optimism and their children's self-regulation, only the permanence factor of the mother's optimism predicted children's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regulation. As for the relations between mother's acceptance parenting attitude and their children's self-regulation, two components of mother's acceptance parenting attitude (unconditionally love & right) could predict children's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regulation. The component of unique could predict the cognitive and emotional regulation.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mother's optimism and acceptance parenting attitude positively affect on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ability in children.

Keywords: optimism, acceptance parenting styles, self regulation, cognition regulation, emotion regulation, behavior regulation

Received April 30, 2019

Revision received May 27, 2019

Accepted June 12, 2019